

# 간호학생 회복탄력성(Resilience) 연구의 동향 - 융합적 관점

안은경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The Trends of the Research on Resilience in Korean Nursing Students - Perspectives of Convergence

EunKyong Ahn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회복탄력성 연구의 동향을 융합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2010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8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복탄력성 개념은 6가지 용어로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양적 연구의 비중(99%)이 매우 높았다. 또한 개인과 대학 차원에서 다양한 보호요인, 변화요인, 위험요인이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회복탄력성이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의 전공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향후 연구 시 명료한 용어 정의와 적절한 측정 도구의 선택이 강조되어야 하며 다양한 설계를 적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회복탄력성, 간호대학생, 연구 동향, 용어 정의,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87 published studies in domestic journals 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and propose som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s of resilience were used in 6 different ways. Second, the number of quantitative research was overwhelmingly bigger(99%) than the ones of the qualitative and mixed research. Third, the protective, risk and changing factors were found in most studies around individual and university level. Throughout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resilience is a very important factor that play a significant role i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But it is required to clarify the concept of resilience and choose appropriate measurement scale. Also it is needed to conduct research with various designs in the future.

**Key Words** : Resilience, Nursing Students, Research trends, Definitions of concept, Convergence

\*This study i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2018

본 논문은 2018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EunKyong Ahn(aek@dst.ac.kr)

Received March 25, 2019

Accepted May 20, 2019

Revised April 29, 2019

Published May 28, 2019

## 1. 서론

### 1.1 서론

#### 1.1.1 연구의 필요성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 혹은 부정적 사건 후에 회복되거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말한다. 회복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효과를 완충하거나 최소화하는 보호 요인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다[1]. 이러한 보호요인은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호요인의 강화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 중재를 적용하면 현재의 스트레스원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피하고 미래 역경에 대해 잘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2].

간호대학생은 학업과 임상실습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3], 이는 학교생활 적응, 진로 설정 등과도 직결된다. 이에 간호대학생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많은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미래의 도전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회복탄력성 강화 중재의 개발을 제안하였다[1,2].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개인적인 발달과정이다. 회복탄력성에 의해 측정된 성공경험은 간호대학생의 적응능력과 안녕감을 증진시키며[1,4], 회복탄력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간호직 취업 이후의 적응과 업무수행도 또한 높다[5].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의 전공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시작하여 201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거나,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4].

이처럼 회복탄력성과 타 변수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양적 연구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각 연구마다 회복탄력성 개념을 '자아탄력성', '극복력', '적응유연성' 등 서로 다른 여러 용어로 번역하거나 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회복탄력성은 분야, 연령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6] 복잡한 현상으로서, 연령, 대상, 구성요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데[7], 각 연구자들이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대상자에게 사용된 개념을 비판적 사고나 정확한 이해 없이 그대로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모호한 개념의 사용은 연구 결과의 질과 이의 실무 적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이 유용한 개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개념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연구하여 그 결과를 실무에 활용하여야한다.

전문분야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행된 연구논문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시급성이 된다[8]. 또한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다각적 중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통합적 시각에서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통합적 시각에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연구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회복탄력성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고찰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도별 발표 논문 수를 분석한다.
- 2) 회복탄력성 용어 정의 현황을 분석한다.
- 3) 연구설계 유형을 파악한다.
- 4) 회복탄력성 측정 도구 사용 현황을 분석한다.
- 5) 자료분석 방법을 파악한다.
- 6) 연구의 출처를 파악한다.
- 7) 회복탄력성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 1.2 연구 방법

### 1.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 회복탄력성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1.2.2 연구 대상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4] 2017년 12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 87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 1.2.3 자료 수집 방법

'간호', 'resilience', '학생'을 검색어로 하여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였다. 이 중 학위논문, 중복된 논문, 원문 확인이

불가한 논문, 분석에 필요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제외하고 2010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87편을 목록화하였다. 연구자가 목록화된 논문의 원문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1.2.4 자료 분석 방법

연구 대상 논문의 발표 연도, 용어 정의, 연구방법 및 설계, 자료분석 방법, 측정 도구, 발표 학술지,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MS Excel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1.2.5 연구의 제한점

연구 대상 논문을 선정하기 위해 일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출판된 논문 전수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2. 연구 결과

2.1 연도별 발표 현황

연도별 발표현황 Table 1을 보면,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29편과 33편이 발표되어 전체 논문 수의 70%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Number of Included Studies by Year

Year	N	%
2010	0	0
2011	2	2
2012	1	1
2013	6	7
2014	11	13
2015	6	7
2016	29	33
2017	32	37
Total	87	100

2.2 용어 정의 분석

연구 대상 논문에서 사용된 회복탄력성 용어 정의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61편(7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회복탄력성 15편(17%), 학업탄력성 5편

(6%), 극복력 4편(5%), 적응유연성과 진로탄력성 각 1편(1%) 순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finitions of Resilience

Definition	N	%
Resilience	15	17
Ego-Resilience	61	70
Academic Resilience	5	6
Resilience(Coping power)	4	5
Resilience(adaptive flexibility)	1	1
Career Resilience	1	1
Total	87	100

2.3 연구 방법 및 설계 분석

연구방법 및 설계는 각 연구자가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87편 중 양적 연구가 86편(99%), 혼합(triangulation) 연구가 1편(1%)으로 나타났다(Table 3). 양적 연구 중에서는 비실험 연구가 83편(95%)으로, 그 중 조사연구가 70편(80%)으로 가장 많았고, 상관관계 연구 12편(14%), 방법론적 연구 1편(1%)순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는 4편(4%)으로 유사실험설계 연구 3편(3%)과 원시실험설계 1편(1%)으로 나타났다.

Table 3. Study Designs of Included Studies

Design		N	%		
Quantitative study	Experiment	primitive	1	1	4
		Quasi	3	3	
	Non Experiment	Descriptive	70	80	95
		Correlational	12	14	
Methodological		1	1		
Qualitative study		0	0	0	
Triangulation		1	1	1	
Total		87	100		

2.4 자료분석 방법 분석

연구 대상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분석 방법은 Table 4와 같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t 또는  $\chi^2$  검정(94.25%), 상관관계 분석(93.10%), 다변량분석(88.51%), 회귀분석(88.51%)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구조모형 3편(3.45%), 요인분석 2편(2.30%), 경로분석 1편(1.15%), 매개효과분석 2편(2.30%)으로 나타났다.

Table 4. Data Analysis Methods of Included Studies

Data Analysis Method		N	%
Quantitative method	t or $\chi^2$ test	82	94.25
	ANOVA	77	88.51
	Regression	77	88.51
	Correlation	81	93.1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	3.45
	Factor analysis	2	2.30
	Path analysis	1	1.15
	Sobel test	2	2.30
Qualitative method	Content analysis	1	1.15

### 2.5 회복탄력성 척도 사용 분석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인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Ego-Resiliency Scale을 Yoo와 Shim(2002)이 번역한 도구[9]가 가장 많이 사용(32편, 36.78%)된 것으로 나타났다. Klohnen(1996)의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를 Park(1996)이 번역한 도구[10]가 16편(18.39%)의 논문에서 사용되었고, Atsushi 등이 개발하고 Jung(2006)이 수정한 도구[11]가 5편(5.75%)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기타 소수의 논문에서 Connor와 Davidson (2003)이 개발한 CD-RISC-10(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12],

Table 5. Resilience Scales of Included Studies

Definition	Scale		N	%
	Name	Content		
Ego-Resilience	Ego-Resiliency Scale[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CPI)]	Klohner(1996) translated by Park(1997)	16	18.39
		Klohner(1996) modified by Kim & Lee(2014)	1	1.15
	Ego Resilience scale(ER)	Block과 Kremen (1996) translated & modified by Yoo & Shim(2002)	32	36.78
		Block과 Kremen (1996) translated & modified by Yu, Hong & Choe (2004)	1	1.15
		Block과 Kremen (1996) translated & modified by Shin et al(2009)	1	1.15
	Ego Resilience scale	Jew(1991) translated by Kim(2003)	1	1.15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10)	Connor & Davidson (2003) modified by Campbell-Sills와 Stein (2007)	1	1.15
		Connor & Davidson(2003) Korean Version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 translated & verified by Baek et al(2009)	2	2.30
	Ego Resilience scale	Min(2007)	1	1.15
	Ego Resilience scale	Atsushi et al(2002) modified by Jung(2006)	5	5.75
Ego Resilience scale(ER)	Block & Block(1980) modified by Kim & Yoo(2014)	1	1.15	
Resilience	Resilience Quotient Test (RQT)	Reivich & Shatte(2002) modified by Shin et al(2009)	7	8.05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Yang et al(2015)	4	4.60
	KRQ-53	Reivich & Shatte(2002) revised by Shin et al(2011)	2	2.30
	Resilience Scale(RS)	Wagnild & Young(1993) translated by Song(2004)	1	1.15
Resilience (Coping power)	Resilience Scale(RS)	Wagnild & Young(1993) translated by Song(2004)	4	4.60
Academic Resilience	Academic Resilience Scale	Kim(2008)	5	5.75
Resilience (adaptive flexibility)	Resilience Scale	Lim(2013)	1	1.15
Career Resilience	Career Resilience Scale	Kim(2014)	1	1.15
Total			87	100

Block과 Block(1980)이 개발하고 Kim과 Yoo(2014)가 수정·보완한 도구[13], Jew(1991)가 개발하고 Kim(2003)이 변안한 도구[14]와 Min(2007)이 개발한 도구[15] 등이 사용되었다.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eivich와 Shatte(2002) 개발하고 Shin, Kim & Kim(2009)이 수정한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16]가 7편(8.05%)의 논문에서 사용되었고, 이 도구를 2011년에 개정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KRQ-53이 2편(2.30%)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Yang 등[4]이 간호대학생을 위해 개발한 회복탄력성 척도가 4편(4.60%)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학업탄력성 측정을 위해서는 Kim(2008)이 개발한 학업탄력성 척도[17]가 5편(5.75%)의 논문에서 사용되었고, 극복력 측정을 위해 Wagnild와 Young(1993)이 개발하고 Song(2004)이 번역한 RS(Resilience Scale)[18]이 4편(4.60%)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적응유연성 측정을 위해 Lim(2013)이 개발한 Resilience Scale[19], 진로탄력성 측정을 위해 Kim(2014)이 개발한 Career Resilience Scale[20]이 각각 1편(1.15%)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 2.6 연구 대상 논문의 출처 분석

연구대상 논문의 출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학제간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44편(51%)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28편(32%)이었고, 보건의료 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11편(13%), 교육학 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4편(5%)로 나타났다.

Table 6. Sources of Included Studies

Fields	N	%
Nursing	28	32
Public Health	11	13
Education	4	5
Multidiscipline	44	51
Total	87	100

## 2.7 회복탄력성의 보호요인, 변화요인 및 위험요인

선형 연구[21]의 분류 기준을 토대로 회복탄력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변수는 보호요인으로,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변수는 위험요인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은 하위

요인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받는 변수는 변화요인으로 분류하고, 개인과 대학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보호요인은 총 90개로 나타났으며, 성격적 특성 34개, 인지적 능력 16개, 사회성 22개, 대학 18개의 하위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하위 요인별로 보면, 성격적 특성에서는 자기효능감이 10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개념 4개, 간호전문직관과 자아존중감이 각각 3개로 나타났다. 인지적 능력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 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해결 2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에서는 정서 및 감성지능이 각각 6개로 가장 많았고,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지지와 셀프리더십이 각각 4개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는 전공만족도가 14개로 가장 많았고, 학과만족도가 2개로 나타났다.

변화요인은 총 47개로 나타났으며, 개인 요인 27개와 대학 요인 20개로 분류되었다. 하위 요인별로 보면, 개인 차원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이 9개로 가장 많았고, 안녕 5개, 스트레스 대처 3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차원에서는 대학생활적응이 가장 많았고, 전공만족도와 학과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등의 변수가 확인되었다.

위험요인은 총 25개로 나타났으며, 성격적 특성 9개, 인지적 능력 16개의 하위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하위 요인별로 보면, 성격적 특성에서는 불안과 정서반응이 각각 2개로 나타났다. 인지적 능력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4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3개, 지각된 스트레스가 2개로 나타났다.

## 3. 논의

본 연구의 대상 논문에서 사용된 회복탄력성 용어 정의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 회복탄력성, 학업탄력성, 극복력, 적응유연성과 진로탄력성 순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Park & Choi[21]의 연구와 유사한 현상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자아탄력성은 회복탄력성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개념으로서[13] 개인의 성격유형이나 개인적 성향이며 선천적으로 타고난 고정적인 특성이다[22].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을 성격의 한 유형으로 정의할 경우, 개인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가정하지 않으며 각 개인이 유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상황에 잘 적응했다고 가정한다[13]. 반면 회복탄력성은 발달 단계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대처과정의 다변적이고 역동적인 본질을 내포하고 있으며[23] 강점이나 약점과 같은 개인의 고

정된 특성이 아닌 심각한 위험상황이나 스트레스 환경에도 긍정적으로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13]. 즉, 어려운 생애 사건의 영향에 대응하려는 행동을 포함하는 개인의 내·외적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역동적 과정이다[24]. 이처럼 회복탄력성을 역동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및 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변인중심 분석(variable-based analysis)'을 시도하며, 이는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의 출현을 예방하고 회복탄력성을 촉진하는 보호요인의 개발과 증대에 관심을 갖는다[13].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까지의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관련 변인,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4] 변인 중심 분석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Resilience' 개념을 역동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연구의 목적이 Resilience의 향상 및 이와 관련된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회복탄력성'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양적 연구가 전체 논문의 99%로, 1%인 혼합(triangulation) 연구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적 연구에서는

조사연구가 70%로 가장 많았는데, 이 연구들은 회복탄력성과 타 변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t 또는  $\chi^2$  검정(94.25%), 상관관계 분석(93.10%), 다변량분석(88.51%)과 회귀분석(88.51%)을 일련의 과정으로 실시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실험연구는 4%로 나타나 극소수의 연구만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특정 내용의 교육(태극권 수련, 긍정심리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교육, 핵심기본간호술교육)이 회복탄력성에 변화를 주는지를 비교하는 연구[25-29]이었다. 질적 연구는 한편도 시행되지 않았으며, 혼합연구[29]가 1편 있었지만 이 연구도 회복탄력성에 대한 내용은 양적 연구 절차에서만 진행되었다. 회복탄력성은 위험이나 역경에 부딪혔을 때의 긍정적 적응, 위험으로부터 견뎌 내거나 회복하는 역동적 체계의 능력으로 개인의 심리변화 뿐만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복잡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기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21]. 즉,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질적 연구나 회복탄력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종단 연구 등이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회복탄력성을 측정에 사용된 도구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 개념 측정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Block과 Kremen (1996)이 개발한 the Ego Resiliency scale(ER)

Table 7. Protective, Risk & Changing Factors of Resilience

Factor	Category	Variable	N
Protective	Person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10; General 4, Career decision3, Academic, Occupational, clinical practice) / self-concept(4; professional 3, academic) / nursing professional value(3) / self-esteem(3) / career/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identity) / subjective happiness(2) / psychological well-being / MBTI personality / humor sense / perfectionism / character / humanistic knowledge / grit / sexual attitude / empowerment	34
	Cognitive Abiliti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5)/ learning(4;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 achievement goal) / problem solving(2) / problem-centered / clinical competence / competence in intensive and critical care nursing / competence of disaster nursing / perception of disaster nursing	16
	Sociality	affec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6) / communication competence(4) / social support(4) / self leadership(4) / empathy ability(2) /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 relationships among fellow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22
	University	major satisfaction(14) / department satisfaction(2) / school satisfaction / teacher-student interaction	18
Changing	Individuals	clinical competence(9) / well-being(5; spiritual 2, religious, subjective, psychological) / stress coping(3) / communication competence(2) / happiness, happiness index / career ident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erminal care attitude / problem solving process / sexual autonomy / health promotion behavior	27
	University	adjustment to college life(14) / major satisfaction(3) / department satisfaction /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 nursing professional value	20
Risk	Personal characteristics	anxiety(2), test anxiety / emotional reaction(2), depression / mental health / MBTI personality / smart phone addiction	9
	Cognitive Abilities	academic stress(4) / stress on clinical practice(3) / clinical practice burnout / perceived stress(2), stress, life stress, personal distress / job seeking stress / suicide ideation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6
Total			162

을 Yoo와 Shim(2002)이 변안하고 수정·보완한 것[9]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것은 Klohnen(1996)이 개발한 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CPI)를 Park(1997)이 변안한 도구[10]이다. 이 도구들은 대학생에게 적합하나, 내용타당도가 약하고 이론적 틀이나 방법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4]. 또한 Block과 Kremen(1996)의 도구는 회복탄력성을 성격의 한 유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개인의 발달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간과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16]. 이외에도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10)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역동적 과정을 의미하는 회복탄력성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4]. 회복탄력성 개념 측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 중에서는 Reivich와 Shatte(2002)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RQT)]를 Shin 등(2009)이 수정·보완한 도구[16]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도구는 2011년에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KRQ-53으로 개정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구들은 우리말로 번안된 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정·보완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같은 도구를 번안하더라도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외국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문화와 연구 맥락을 고려한 수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도구의 고유성을 잃게 되기도 하며, 다른 연구자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연구결과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능한 원 자료를 통해 고유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도구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용어의 정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도구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Wagnild와 Young(1993)이 개발하고 Song (2004)이 번역한 Resilience Scale(RS)[18]을 각각 회복탄력성과 극복력을 측정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그에 적절한 도구를 채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간호대학생 회복탄력성의 보호요인은 총 90개로 매우 다양하였고 개인과 대학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었다. 특히 개인 차원에서는 성격적 특성, 사회적, 인지적 능력 순으로 확인된 변수의 수가 많았다. 성격적 특성에서는 자기효능감, 자아개념, 간호전문직관, 자아존중감 등이 확인되었다. 사회성에서는 정서 및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지지, 셀프리더십 등이 확인되었고, 인지적 능력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많았고, 자기주도학습과 같은 학습관련 변수가 확인되었다. 대학 차원에서는 전공만족도가 가장 많았고, 학과만족, 학교만족,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개념분석을 실시한 국외 연구[1]에서 회복탄력성의 속성을 자기효능감, 유머, 역량, 긍정적 정서 등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로 정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청소년 대상 선행 연구[21]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기는 했지만, 다른 점은 선행 연구에서는 개인이나 대학의 수준 이외에 가족과 지역사회 수준의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특성인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징적인 것은 보호요인으로서 인지적 능력에서는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낸 비판적 사고성향이 동시에 위험요인의 인지적 능력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이다. 비판적 사고 기술이 향상되면 질적인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는데[30], 회복탄력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받는 변화요인을 하위 요인별로 보면, 개인 차원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이 가장 많았고, 안녕, 스트레스 대처, 행복 등의 변수가 확인되었다. 대학 차원에서는 대학생활적응이 가장 많았고, 더불어 전공만족, 학과만족, 임상실습 만족 등의 변수가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개념 분석을 실시한 국외 연구[1]에서 회복탄력성의 결과를 대처와 적응능력 향상, 안녕으로 정의한 것과 유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이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험요인은 보호요인이나 변화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변수들이 확인되었는데 모두 개인 차원으로서 성격적 특성과 인지적 능력에 관한 것이었다. 성격적 특성에서는 불안과 정서반응, 우울, 정신건강 등이 확인되었고, 인지적 능력에서는 학업·임상실습·생활사건·취업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 임상실습 소진, 자살 생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 대상[31], 청소년 대상[21]의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스트레스가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

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회복탄력성의 수준을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연구에 따라 독립변수 또는 종속변수로 기능하고 있었지만 독립변수로서 연구된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긍정적인 적응이나 결과를 중시하는 변인중심적 접근의 반복연구가 많았다. 따라서 유사한 반복연구보다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최근의 회복탄력성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예방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13].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증진 중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간호 교육자들은 회복탄력성 개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해야 할 것이다.

#### 4. 결론 및 제언

스트레스와 역경에 잘 대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보호요인을 찾도록 도와줌으로써 상황에 잘 대처하도록 한다. 회복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이 학교에 적응하고 여러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역경에 직면한 대상자를 돕는 간호사로 성장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2010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논문 87편을 분석한 결과, 개념에 대한 명료한 정의와 이론적 고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용어와 측정 도구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고, 양적 연구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또한 다양한 보호요인, 변화요인,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유사한 반복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Resilience' 용어를 연구의 목적과 개념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정의하고 그에 맞는 측정 도구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또한 질적 연구 등 다양한 설계를 적용한 연구와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변수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취업률은 높지만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은 현실에서 간호대학생의 'Resilience' 관련 연구들은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Resilience'에 대해 다양한 연구설계를 적용한 균형있는 연구 시도가 필요한 시점에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 [1] T. M. Stephens. (2013). Nursing student resilience: a concept clarification. *Nursing Forum*, 48(2), 125-133.
- [2] N. R. Ahern. (2006). Adolescent resilience: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1(3), 175-185.
- [3] J. K. Goh. (2010). The differences of stressors at grade and ways of coping in nursing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5(2), 79-86.
- [4] Y. H. Yang, E. M. Kim, M. Yu., S. Park., & H. Lee. (2015).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7(3), 337-346. DOI : 10.7475/KJAN.2015.27.3.337
- [5] Y. J. Jee. & K. N. Kim. (2016).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of a nursing college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12), 19-27. DOI : 10.14257/AJMAHS.2016.12.09
- [6] S. Fowler. (2012). Examining the concept of resilience. *New Jersey Nurse & Institute for Nursing Newsletter*, July, 10.
- [7] Y. S. Lee. (2015). Companing theoretical viewpoints about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9(1), 289-310. DOI : 10.18398/kjlgas.2015.29.1.289
- [8] S. H. Kim, S. E. Choi, S. N. Kang, J. S. Park, S. K. Sohn, E. S. Kang & Y. E. Lee. (2007).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 about Hospice in Korea (1991~2004).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0(3), 145-153.
- [9] S. K. Yoo & H. W. Shim.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89-206.
- [10] H. J. Park. (1996).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according to Ego-resilience*.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11] E. O. Jung. (2006). *Validation of Psychological resilience Scale*. Master Thesis. Ch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12] Conner, K. M. & Davison, J. R. T. (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 Anxiety*, 18(2), 76-82. DOI: 10.1002/da.10113
- [13] S. L. Kim, & J. Yoo. (2014).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trajectories of school adaptation among adolescents in povert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9, 153-175.
- [14] J. Kim. (2003). *A study on resilience for adolescent child of problem-drink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 Daejeon.
- [15] D. I. Min. (2007).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school life health and ego-resilience on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 [16] W. Shin, M. Kim & J. Kim. (2009).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4), 105-131.
- [17] N. R. Kim.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Scale of Academic 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18] Y. S. Song. (2004). *Determinants of resilience of the physically disabled at home*. Master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19] S. S. Lim. (2013). *Development of integrated model of resilience and positive development of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Kyoungbuk.
- [20] M. K. Kim. (2014).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resilience scale for college students*.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21] G. R. Park & J. J. Choi. (2016).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youth resilience : Targeting on published papers in domestic journals(1998-2015).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0), 451-478. DOI : 10.21509/KJYS.2016.10.23.10.451
- [22] J. Block & A. Kremen.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centra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23] S. S. Luthar, C. H. Doernberger & E. Zigler. (1993). Resilience is not a unidimensional construct: Insights from a prospective study on inner-city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703-717.
- [24] M. Rutter.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 s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25] J. T. Son & J. J. Lee. (2017). The Effects of a Tai Chi Training Program on Physical Fitness, Stress Response and Ego-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J Muscle Jt Health*, 24(3), 217-226. DOI : 10.5953/JMJH.2017.24.3.217
- [26] S. J. Kim & B. Y. Kim. (2016). The Effects of a Positive Psychology Program on Nursing Students' Positive Thinking, Ego Resilience and Stress Coping.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2(4), 495-503.  
DOI : 10.5977/jkasne.2016.22.4.495
- [27] E. J. Kim & S. J. Kang. (2016). Effects of the simulation on the Ego Resiliency,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of Major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 324-330. DOI : 10.5762/KAIS.2016.17.1.324
- [28] S. Y. Han & K. B. Choi. (2017). Effects of the Education of 36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Using Structured Multimedia on Self-efficacy, 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in Future Nursing Professional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4), 237-254. DOI : 10.22251/jlcci.2017.17.4.237
- [29] O. S. Lee & M O. Gu. (2014).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6), 682-696.
- [30] Y. H. Yeom et al. (2017). *Nursing management(6th edition)*, Seoul : Soomoonsa.
- [31] H. K. Kwon, S. H. Kim & S. H. Park. (2017). A meta-analysis of the correlates of resilience in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3(1), 100-109. DOI : 10.22650/JKCN.2017.23.1.100

## 안 은 경(EunKyong Ahn)

[정회원]



- 2011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리더십, 간호윤리
- E-Mail : aek@dst.ac.kr